



필리핀 결핵관리 역량 강화사업

필리핀 팔라완 결핵검진 참여

필리핀 결핵관리 역량 강화사업에 참여

2009년 11월 25일,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조직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산하기관이며 선진국 중의 선진국만 가입할 수 있다는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24번째 국가로 가입,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DAC 가입은 한국전쟁 이후 절대빈국의 상태에서 국제원조로 연명하던 우리나라가 실질적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하여 국제적 위상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로써 공적개발원조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번 필리핀 팔라완 방문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시행하는 필리핀 결핵관리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협회가 필리핀 팔라완 지역에 이동결핵검진차량을 이용한

- 1 현지 방송국과 인터뷰하는 김희진 결핵연구원장
- 2 장비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 흡입과 배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발전기 하부를 절단하여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DAC 가입은 한국전쟁 이후
절대빈국의 상태에서 국제원조로
연명하던 우리나라가 실질적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하여 국제적 위상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결핵실태조사 및 적극적인 환자발견사업을 위해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팔라완은 필리핀의 수많은 섬 중에 다섯 번째로 큰 섬이며 약 8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 토착민과 무슬림들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결핵검사와 진단이 어려운 지역이다. 최근 제주도와 함께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이 있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인적, 자연적 한계 극복해야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한 결핵검진은 능동적인 환자발견사업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실시해 왔다. 현재는 엑스선결핵검진과 객담도말검사, Gene Xpert장비를 이용한 내성결핵진단까지 현장에서 실시하는 ONE-STOP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데,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의 형태로, 35인승 마을버스 크기의 검진차량을 개조하여 이동검진차량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크기의 차량이지만 현지에는 대형 차량이 거의 없어 필리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현지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시범 사업으로 필리핀 검진팀이 주 교도소 재소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진행하면서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다. 검진 첫날 교도소 주변지역의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 차량에 특장되어 있는 발전기를 사용하여 검진교육을 실시 중 3시간 정도 사용한 발전기가 꺼지는 오류를 일으켰다. 점검을 해본 결과 장비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공기 흡입과 배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차량 발전기 하부를 절단하여 공기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3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들이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매일 장비 및 검진 교육 후 50명 정도의 인원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 객담검사와 Gene xpert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판독의사의 영상판독능력이 미흡한 관계로 상당히 많은 수(40%)의 인원에 대하여 객담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인원 중 상당한 인원이 결핵 유증상자로 보이며, 결핵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인력이 많지 않고, 운전원 또한 대형버스 운전을 처음 하는 것으로 당분간 안전운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야 할 부분이며, 매일 계속되는 폭염과 스콜로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올 여름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수교육 후 일주일의 시간 동안 차량과 장비에 대한 보완 교육으로 필리핀 검진팀의 능력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필리핀 검진팀의 열의도 대단하지만 현지 방송국을 비롯한 언론매체의 취재 열기 등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향후 지속적으로 필리핀 팔라완 결핵관리 역량 강화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돌아왔다.†

올 여름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수교육 후 일주일의 시간 동안 차량과 장비에 대한 보완 교육으로 필리핀 검진팀의 능력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